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이 형 하

(광주여자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경험에 대한 의미와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으로 접근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한국에서 생활한지 3년 이상 된 결혼이주여성 14명이었다. 연구결과 총 13개의 범주와 27개의 하위 범주 그리고 71개의 개념을 추출하였다.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경험에서의 인과적 조건은 '불확실한 출발', '현실문제에 직면함'이었고, 중심현상은 '참여를 통해 존재감 찾아가기'이었다.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국제결혼을 후회함', '갈등을 경험함', '부정적 선입견으로 바라봄', '현실을 딛고 일어섬'으로 나타났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삶의 돌파구 찾기', '수용해 나감'이었다.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시키거나 억제하는 중재적 조건은 '사회적 지지체계', '지역적 한계'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미래를 준비함', '지속적 사회활동을 희망함', '공적 지원체계에 기대를 가짐'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 차원의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지역사회활동, 지역사회 참여경험, 근거이론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332-B00251). 본 논문을 꼼꼼하게 읽고 귀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1. 서론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도 이전에는 일본과 중국이 다수를 이루었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출신 국가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동남아시아 지역출신 여성의 이주화(feminization of immigration)라는 특징과 국가 간, 지역 간의 불균등한 경제적 발전 안에는 인종, 계급, 젠더 등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Lauby and Stark, 1998; De Jong, Fi Gordom, Kerry Richer, and Pimonpan Isarabhakdi, 1996; Ramirez, Mar Garcia Dominguez, and Julia Míguez Moraiset, 2005).

1990년대 이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국가 간의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제 1세계의 남성과 제 3세계의 여성이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하는 여성들의 이주 동기는 잘 사는 국가에서 시민권을 얻고 가난한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설명된다(Smith and Kaminskas, 1992; Hofstede, 1996; Imamura, 1998; Castles and Miller, 2003; 김오남, 2006). 한국에서 최근 10여년간 관찰되는 이주는 대다수가 경제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의 한국남성과 자본이나 기술력이 없는 단신의 제3세계 결혼이주여성의 결합(윤혜미, 2009)인 경우가 많으며, 결혼입국 후에도 동남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제3세계 출신의 여성에 대한 강한 차별현상은 결혼이주여성의 외부세계와의 단절을 초래하여 결국 국내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박재규, 2006). 이러한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지역사회의 이웃들로부터 제한된 교류나 심지어 고립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면서 지역사회 활동과 참여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유용한 자원접근마저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의 관점에서 지역사회활동 참여경험의 의미와 참여방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동향을 보면 국제결혼을 한 여성이 겪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강유진, 1999; 양철호·김영자·손순용·양선화·신봉관·조지현, 2003; 윤형숙, 2004; 신란희, 2005; 최금해, 2005), 국제결혼가정의 부부 만족도와 부부 갈등요인과 임파워먼트 등에 관한 연구(권복순·차보현, 2006; 김오남, 2006; 박재규, 2006; 양순미, 2006; 윤혜미, 2009), 문화적 적응과 유형에 관한 연구(김이선·양인숙·황정임·고혜원, 2006; 최금해, 2006; 구차순, 2007; 최혜지, 2009),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실태조사와 거시적 측면에서의 정책지원 방안 연구(설동훈, 2005), 한국사회 지역주민 입장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방안 연구(양애경·이선주·최훈석·김선화, 2007; 이용균, 2007) 등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 이주자를 거시적 단위인 '한국사회'와 곧바로 대응시킨다는 것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점을 반영한 접근방법은 아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의 적응을 논의할 때, 사실 '개인'과 '사회' 사이에 수많은 준거집단과 사회관계망, 다양한 매개 단계들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는 결과이다(황정미·문경희·양혜우·정승희,

2009). 이러한 유형의 차별적 배제 상황에서는 이주자집단을 타자화(Chrysochoou, 2004)하며 주류 사회로의 동화와 통합을 요구하지만, 주류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상호작용, 공존, 문화적 개방성, 경제적 기회 등 문화적 다양성 존중과 다문화주의 수용이라는 공동체 형성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존재한다 (Roberts and Clifton, 1982; Castle, 2002).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생각,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자조집단의 형성과 지지망의 확대 체험, 문화적 차이와 편견으로 인한 갈등의 장으로서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경험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이러한 문제해결 과정에 영향을 주는 지역사회 차원의 개입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연컨대, 결혼이주여성들이 새로운 정주민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범위를 벗어난 또 다른 사회적·인적관계망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삶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실질적인 사회통합 마련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전에 연구하지 않은 영역을 연구하는 데는 근거이론 연구가 유용한 연구방법 중 하나이다(신경림·김미영 역, 2003, Scheriber and Stern).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진술한 지역사회활동 참여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논의의 확대와 기초지식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선행연구 검토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지역사회는 가정의 정상적 기능수행과 안정에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경제적 적응의 장이다. 비공식적 지원체계이며 대인관계망인 이웃, 공식적 지원체계로서의 사회복지와 보건 서비스, 교육기관의 소재지이며 취업현장이어서 지원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되는 가장 근접한 환경이기도 하다(윤혜미, 2009). 지역사회 활동은 행동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에 기반하고, 강한 네트워크, 강한 지역사회연대감, 강한 지역사회감, 지역사회에 대한 믿음 및 자발적 활동과 참여를 통하여 증가한다(Dochery and Goodlad, 2000). 그러므로 사회적 행사 참여, 직업적 역할 참여, 교회에 다니는 것, 시민사회조직 참여 뿐만 아니라 친구와 어울리기, 이웃에게 자그마한 혜택을 주는 것 등의 일대일 대면적 원조 모두 지역사회 생활경험의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주문화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Berry와 Blodel(1982)은 결혼이주여성의 이주문화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토착민들과의 대화, 사교모임 참여, 스포츠 모임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이주문화습득의 어려움이 낮아진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했다(최혜지, 2009). 이렇게 볼 때 지역사회 참여는 주민들이 형성하는 문화인 것이다(강대선·류기형, 2007).

한편, 이주민과 지역사회 참여를 다룬 외국의 정책과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경우 국가 차원(총무성, 2006)에서 사회활동의 외국인에 대해 일본인과 공존해야 할 '생활자'로 간주하고 '다문화공생의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영역으로 ① 커뮤니케이션 지원, ② 생활지원, ③ 다문화공생 지역만들기를 제시하였다(이태주·권숙인·Julia Martinez·Yamamoto Karoi, 2007). 특히 '다문화공생 지역만들기'와 관련해서 단순히 외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식의 국제이해

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다문화이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쿄 오쿠보(大久保) 외국인 집단지구에 대한 사토 아키히토 연구(2008)에서는 일본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융합해서 상호 이해하면서 생활하는 '다문화 공생(共生)'이 아니며, 거의 교류없이 따로따로 사는 '다문화 병생(併生)'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일본사회의 폐쇄성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이주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 사회에서는 이주민의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이주민의 종족 공동체(ethnic community), 초국적 사회관계망(transnational ethnic network) 등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가 있다(Faist, 2000; Castle, 2002; Zentgarf, 2002; Itzhaky, 2003; Yamanaka and Piper, 2005; Piper, 2008; Hugo, 2008; Jayati, 2009; 황정미 외, 2009). Piper(2008)는 이주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스스로 세력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자본이 중요하게 개입한다고 지적한다. 즉, 자조조직(self-organising)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Castle(2002)은 이주민 공동체 형성에 이주목적국의 수용방식에 따른 양상을 동화, 차별적 배제, 다문화주의로 유형화하여 분류했다. 그 중에서 다문화주의는 세계시민적 공동체(cosmopolitan communities)로 귀결되며, 이주민의 문화적 다양성과 이주민 공동체를 존중하며, 이주민들이 형성한 초국적 공동체는 개방된 형태로 지역사회와 상호 소통할 수 있다고 하였다. Faist(2000)는 초국적 사회공간에서 주고받는 자원이 무엇이고 어떤 원칙에 따라 관계성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이주한 이후 본국의 가족과 관계를 지속하면서 송금을 하거나 상호 방문을 하는 일차적인 관계는 '초국적 친족집단'(transnational kinship), 가족이나 친족을 넘어서서 본국 출신 사람들과 상호 협력하여 내부자로서의 혜택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는 '초국적 순회'(transnational circuit),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초국적 공동체'(transnational community)로 분류하였다.

셋째, 실증 사례연구를 통해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를 다룬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tzhaky(2003)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디오피아와 구소련출신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5년간 운영된 프로그램 결과, 이주여성들은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리더십 향상, 커뮤니티 소속감 강화, 그리고 세력화의 효과를 얻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Zentgarf(2002)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엘살바도르 출신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민 이후 임금 노동에 참여한 경험이 여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여성 이민자들은 이민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모국에서의 삶과 비교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 능력강화 과정은 개인적 차원의 경험이라기보다는 가족, 공동체, 나아가 더 큰 사회적 맥락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최근에는 이주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한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박재규(2006)의 이주여성 농촌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결과, 이주여성의 외부활동 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국내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면, 외부교육이나 모임에 참여하고자 했을 때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여성의 경우 부부생활이나 이웃관계에 긍정적이었다. 양애경 외(2007)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과 이들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에 대한 연구결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주민 등과의 관계 속에서 타당성을 갖추어야 할 정책으로서의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며,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차이 인식과 존중에 기반한 쌍방향 문화소통을 위한 다문화 수용성 증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용균(2007)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으로의 동화를 무조건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의 타자성을 인정해주면서 지역사회로의 적응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들의 사회적 관계는 같은 지역의 출신국 친구들과의 교류에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3. 연구방법

1) 근거이론

근거이론 연구는 특정 상황에 관련된 어떤 이론, 즉 어떤 현상에 대한 추상적 분석적 구조를 생성하거나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Creswell, 1998). 그 현상에 속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발견되고, 발전되고, 잠정적으로 증명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연구자는 면접 자료를 수집하며,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정보의 범주들을 개발하고 상호 관련시키며, 이론적 명제 혹은 가설을 쓰거나 이론에 대한 시각적 그림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근거이론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라는 생활터전 속에서 경험하는 체험의 본질이 개별적 속성이 아닌 관계적 속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계적 속성이라는 상징적 상호작용의 이해는 근거이론의 철학적 기반이기 때문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공동체 성원과의 소통을 통한 사회적 행위는 복수적 관점(triangulation)을 가질 수 있다. 사회적 상황과 연결되어 해석하는 관점에 대한 설명에는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활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조직단위로서의 지역사회라는 공간 속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관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해 나가는지의 과정을 탐색하고, 자신의 역할정의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지를 경험주체자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데는 근거이론 연구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2) 연구 참여자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Goets와 LeCompte(1984)가 제시한 준거적 선택방법 중 세평(世評)적 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과 눈덩이 표본추출(snow balling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세평적 사례선택 방법은 특정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했거나 많은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사례를 선택하는 것이다. 군청 사회복지과 계약직 공무원(다문화 가정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전문가를 통해 5개군(郡)에서 5명을 추천받았다. 눈덩이 표본

추출은 결혼이주여성과의 면담과 만남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사회에 결혼이주 기간이 3년이 경과한 결혼이주여성을 소개받아 이루어졌다. 이는 본 연구의 주제인 지역사회의 참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소통이 수월하고,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기관에 맡긴 후 사회활동 참여가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 선정의 기준은 지역사회활동 참여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한 경제 및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질적연구에서 표본추출의 두 가지 원리인 적절성과 충분성을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적절성 측면에서 결혼이주후 3년이 경과한 경제 및 직업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택하였고, 자료의 충분성을 위해서 본 연구자는 1차 연구 참여자 5명으로부터 나온 자료를 비교 분석하면서 2차 대상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유사점과 차이점의 사례를 탐색하면서 지속적인 비교(constant comparison)의 과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자료수집과 함께 이루어졌다.

3) 자료수집 과정

본 연구의 자료수집 절차와 방법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질문과 주제 그리고 언어적 민감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생활 경험을 저술한 단행본, 이주여성의 사회참여 관련 TV 출연내용을 담은 비디오 자료,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및 자조모임의 인터넷 카페 등 비학술적 문헌이나 글에 대해 고찰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을 일관성 있게 이끌어가기 위해 개방형 유형의 면담 흐름표를 작성하여 활용하였다. 인터뷰 결과에 대한 필사작업(transcript), 그리고 인터뷰 결과에 대한 분석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연구자가 인식한 연구 참여자의 감정, 태도, 경험, 반응 등을 현장에서 메모한 현장노트 역시 자료로 함께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진행되었다. 면담 장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실,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실, 점심식사를 함께한 후 조용한 시간에 식당주인의 안방, 결혼이주여성의 직장 휴게실 등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에 앞서 연구자에 대한 소개, 연구 목적, 면접 내용에 대한 활용, 비밀보장, 녹음에 대한 허락 등을 설명하고, 참여 동의를 받았다. 면담은 휴대용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하였고, 녹음 내용은 연구보조원이 필사한 내용을 연구자가 다시 녹음을 들으면서 확인하였다. 면담시간은 1회에 60분에서 120분 정도 걸렸으며, 면담횟수는 1회에서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4) 연구자준비와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자는 2001년 2월부터 9월까지 D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사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외부 지원기관의 공모사업으로 지역사회 거주 독거노인 16명을 대상으로 지나 온 삶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이를

기록하여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들 노인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 경험을 갖고 있다. 2003년 8월부터 10월까지 G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가구원 44명을 대상으로 한 빈곤요인별 사례분석을 위한 질적 사례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한 바 있다. 2006년 5월부터 11월까지 미혼 양육모 6사례에 대한 양육체험 연구에서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논문지도를 수행한 바 있다. 2009년 1월부터는 질적연구에 관심 있는 학자(간호학, 언어치료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분야)와 박사과정 학생들의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질적연구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소지자 2인, 질적연구회 멤버들에게 연구결과에 대한 조언과 토론 과정을 통해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언어적 일관성을 위하여 국문학 박사학위 교수 1인으로부터 분석내용에 대한 언어적 감수를 받아 연구결과를 수정함으로써 본 논문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4.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설명 듣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결혼이주여성 14명이다.¹⁾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4-1>과 같다.

1) 연구 <참여자 4>는 처음 인터뷰에 응하였으나, 가족과 관련한 사항이 외부에 유출될 염려로 부득이 녹음내용을 지워주고 연구대상자에서 철회를 요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참여자 5>는 반복된 남편의 폭력으로 가출 후 일시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서 상담센터에 의뢰되어 1차 인터뷰에 응하였으나, 언제 남편이 상담센터로 찾아올지 모른다면 추가적인 인터뷰 참여를 거절하여 최종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4-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출신국	연령	학력	결혼기간	본인직업	남편직업	가족	거주지	비고
참여자 1	일본	46	전문대졸	13년	일본어강사	농업	2남 1녀	A도 군	
참여자 2	필리핀	40	고졸	8년	자활사업	농업	3남	A도 군	
참여자 3	베트남	29	고졸	8년	자원봉사	회사원	1남	A도 군	
참여자 6	중국(조선족)	36	고중퇴	11년	학교 조리원	건축	2남	A도 군	
참여자 7	중국(조선족)	31	중졸	5년	농업	농업	없음	A도 군	
참여자 8	필리핀	30	대학졸	5년	영어강사	일용직	없음	A도 시	
참여자 9	인도네시아	35	고졸	10년	계약직공무원	기사	1녀	A도 시	
참여자 10	파테말라	35	고졸	10년	보조교사	건축	2남	A도 시	
참여자 11	미얀마	44	대학졸	16년	농업	농업	2남	A도 시	
참여자 12	일본	41	대졸	11년	한국어강사	농업	2남 2녀	A도 군	
참여자 13	중국(조선족)	39	고졸	11년	유치원조리원	기사	1남 2녀	A도 시	
참여자 14	필리핀	35	대졸	9년	계약직공무원	일용직	2남	A도 군	
참여자 15	필리핀	43	전문대졸	11년	영어강사	농업	1남 1녀	A도 군	남편별거
참여자 16	베트남	26	중졸	3년	통번역사	농기계수리	없음	A도 군	

2) 개방코딩 및 패러다임 모형

본 연구는 참여자의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근거로 줄 단위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분석의 절차를 거쳐 밝혀진 개념을 명명하고, 유사한 개념끼리 통합하고 추상화하여 범주화 시켰으며, 이러한 범주를 속성과 차원에 따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그 결과 최종 71개의 개념과 27개의 하위범주, 1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표 4-2〉 참조).

〈표 4-2〉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및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종교를 통해 결혼함, 결혼적령기가 지나 결혼함, 사랑으로 맺어져 결혼함,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함	국제결혼 결심	불확실한 출발	인과적 조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스트레스 받음, 주위사람들부터 언어적 상처를 받음, 언어의 제약으로 자녀교육의 어려움	언어의 차이	현실문제에 직면함	
음식의 차이, 의식구조의 차이, 풍습의 차이	문화의 차이		
외로움, 농사일이 힘들, 경제적 어려움	힘듦		맥락적 조건
기대와 다른 현실에 당혹함, 배우자의 가정형편을 모르고 결혼함, 막연한 기대감, 중매 브로커에게 속음	기대와 현실의 차이	현실에 당혹함	
성격차이, 금전으로 인한 갈등, 배우자의 비협조, 배우	부부사이 충돌과	갈등을 경험함	

자의 무시, 자녀 교육관의 차이, 남편과의 학력 차이	마찰		
시어머니와 갈등, 시댁식구들의 냉담	시댁과의 소원한 관계		
다문화가정에 대한 거부감, 자녀의 반항심	자녀의 부정적 태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 시어머니의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선입견	배제의 대상	부정적 선입견으로 바라봄	
시어머니를 설득, 당당하게 표현하기	외부체계를 향한 도전	현실을 딛고 일어섬	
일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음, 보람, 행복감	삶의 활력을 찾음		현상
사회적 인정, 경제권 획득, 가족으로 인정받음	인정받음	참여를 통해 존재감 찾아가기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 마을축제에 참여	교류		
여성단체를 통한 사회활동을 희망함	여성단체 가입		
다문화 아동을 위한 도움활동을 희망함	자원봉사		
배우자의 지지, 시댁의 지지, 원가족의 지지	가족의 지지		중재적 조건
직장동료의 지지, 이웃의 지지, 자조집단의 지지	지역사회의 지지	사회적 지지체계	
문화시설의 부재, 놀이공간의 부재	문화공간의 부재	지역적 한계	
교통이 불편함, 자녀들의 교육문제, 이중고에 시달림	생활여건의 부족		
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강한 생활력	다양한 직업경험	삶의 돌파구 찾기	작용/상호 작용 전략
열정을 갖고 노력, 비전을 품음	열정을 쏟음		
한국생활에 만족함, 생활의 여유를 가짐, 한국문화를 배우고 익힘	배우고 익힘	수용해 나감	
자녀에 투자, 내 집 마련의 꿈, 생명보험에 가입	불안한 미래를 대비함	미래를 준비함	결과
대학진학을 희망, 자격증 취득에 열정,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계속적인 도전		
이주여성들에게 많은 기회제공 바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어함	직업알선	공적 지원체계에 대한 기대를 가짐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 자녀들을 위한 모국어 교육의 필요성 자각	경제적 자립교육을 필요로 함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보조금 지원을 원함, 교육비 지원을 원함	보조금 지원을 희망		

(1) 인과적 조건

① 불확실한 출발

국제결혼을 결심한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결혼동기와 태도를 보여준다. 단순히 종교적 믿음으로 결혼을 선택하였으며 결혼 적령기가 지나 불안하고 다급한 마음에 배우자의 상황이나 경제적 상태를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국제결혼을 결정한 참여자도 있었다. 오랜 연애 끝에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을

바라보고 낯선 한국에 온 여성들도 있었다.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환경에 부딪치며 적응해야만 하는 국제결혼이란 이들에게 있어 어쩔 수 없는 모험이요 도전일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출발을 결정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만 믿고 그냥... 한국 가자. 그랬을 때는 믿고 한국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으로 맺어져 결혼함, 참여자 9)

“반대했죠. 친정엄마는 반대해갖고, 남편도 중국에 갔는데 막, 쫓아내버렸어요. 남편을... 근데 설마 쫓겨 갖고 나가는 모습을 나 혼자 어떻게 버두고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 나왔죠.”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함, 참여자 6)

② 현실문제에 직면함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한국에 와서 당면하게 되는 현실문제에 고충을 느끼게 된다. 참여자들이 처음 한국에 정착하면서 겪는 가장 큰 현실 문제는 언어문제이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밝았던 성격조차 바뀌어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며 피하게 되고 화병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언어문제 다음으로 많은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풍습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꼽는다. 또한 배우자들은 남편은 하늘이라는 한국의 거부장적이며 권위적인 의식으로 인해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시부모님에 시할머니까지 모시고 살았던 한 참여자는 하루에도 여덟 번씩 식사를 차려야 하는 고충이 컸다고 하소연하였다. 처음 해보는 농사일로 인한 육체적 힘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된 생활의 궁핍함이 결혼이주여성들을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진짜 밝고 말도 많고 그런데 5년 동안... 단어도 모르니까 완전히 성격이 바뀌고 화병 났었어요. 거기서부터 심장병이....” (언어의 차이, 참여자 11)

“같이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시골 어르신들은 가까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 (문화의 차이, 참여자 1)

“한국사회가 잘사는 나라라고 하니까... 그러고 왔는데... 막상 오니까 돈도 없죠. 하나도 없고 통장 주라고 하니까 통장에 돈도 없더라구요.” (힘듦, 참여자 6)

본 연구의 인과적 조건은 ‘불확실한 출발’, ‘현실문제에 직면함’ 이다. ‘불확실한 출발’의 속성은 ‘의지’로 참여자들이 국제결혼에 대해 개방적 관계에서 맺어진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남편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와 한국 사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한 경우는 ‘수동적’으로 차원이 구분된다. ‘현실문제에 직면함’의 속성은 ‘정도’로 언어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농사일과 경제적 어려움 등의 힘들에 따라 ‘کم’, ‘작음’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4-3>과 같다.

〈표 4-3〉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불확실한 출발	의지	능동적-수동적
현실문제에 직면함	정도	큼-작음

(2) 맥락적 조건

① 현실에 당혹함

연애결혼을 한 참여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기대와는 다른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 당혹감을 보였다. 막연하게 한국은 잘 사는 나라라고만 생각하여 부푼 꿈을 안고 결혼했지만 자신의 나라와 별다른 것 없는 결혼생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결혼하고 한국에 와서 보니 빈털터리였다.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중매 브로커의 말만 듣고 덜컥 결혼한 것이 엄청 후회스러웠다. 한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안고 힘들게 살 바에야 차라리 부모형제가 있는 모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미 커버린 자녀들 때문에 모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이젠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따름이다.

“그 처음에 드라마 보면 ‘가고 싶다, 시집가고 싶다’ 막상 여기 왔으니까 아... 좀 그 잘사는 사람도 잘살고요, 그냥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음... 그러죠.” (기대와 현실의 차이, 참여자 3)

② 갈등을 경험함

결혼이주여성들은 주로 가족 내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갈등이 발생하는 영역 또한 단순히 부부만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가족관계 전반임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이 현재 감당하고 있는 결혼생활의 유지는 언어적, 문화적, 경제적 어려움 등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의 유지이므로 많은 갈등요소들을 야기시킨다. 특히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특수성을 안고 있는 남성 중심적 문화와 가부장적 사회체제를 밑바탕으로 한 한국사회에서의 가족관계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여러 가지 갈등요소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결혼생활이란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생활의 부적응과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내가 말은 안해. 남편이랑 의견도 안 나누고 나 혼자 알아서 하고 지금 오늘도 말 안하고 나왔어요.” (부부 사이 충돌과 마찰, 참여자 6)

“**(시택에는)**지금은 거의 안 가요. 저 다른데 갈 때 있어요. 거긴 거의 안 가.” (시택과의 소원한 관계, 참여자 13)

③ 부정적 선입견으로 바라봄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적 편견과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돈도 없고 성격적인 결함과 심지어 장애까지 있는 나이 든 농촌총각에게 시집 온 이주여성들을 보는 동네 어르신

들의 눈길이 곱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불쌍하게 보는 바라보는 분들도 있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방식에 대해 시어머니는 유독 자기집 외국인 며느리만 자기 고집을 밀고 나간다는 부정적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같은 다문화가정의 여성들도 배제의 대상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자기 아내는 외국 사람인데 아기 돌보는 사람이 외국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 네. 그래서 내가 진짜 이상해요. 자기가 애기 엄마가 외국 사람이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나고.” (배제의 대상, 참여자 10)

④ 현실을 딛고 일어섬

참여자들은 한국생활 정착과정에서 외부체계와의 단절을 경험하는 등의 부정적인 경험 속에서도 시어머니나 남편을 설득하고, 자조집단의 동료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가정 밖 외부체계와의 접촉을 시도했다. 또한 취업기회가 주어지는 면접장에서는 자신감 있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를 보여주어 취업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그냥 저는 여기 그냥 집에 있으면 저 한국말도 늘지도 않고... 그래서 시어머니 설득했어요. 여기서(자활사업단) 좋아요.”(시어머니를 설득함, 참여자 2)

“저를 뽑아주신다면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만 했었어요.”(당당하게 표현하기, 참여자 9)

본 연구에서 맥락적 조건은 ‘현실에 당혹함’, ‘갈등을 경험함’, ‘부정적 선입견으로 바라봄’ 등의 3가지 범주이다. ‘현실에 당혹함’의 속성은 ‘정도’면에서 ‘기대와 현실간의 차이’가 ‘큼’과 ‘작음’의 차원으로 구분된다. ‘갈등을 경험함’은 내용면에서 ‘부부 사이 충돌과 마찰’, ‘시댁과의 소원한 관계’, ‘자녀의 부정적 태도’ 등으로 ‘정도’ 차원에서 ‘큼’과 ‘작음’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선입견으로 바라봄’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무시와 존재 자체에 대한 불인정이라는 부정적 시각의 정도에 따라 ‘큼’, ‘작음’이라는 차원으로 나타났다. ‘현실을 딛고 일어섬’은 외부체계에 대한 도전의지에 따라 ‘강함’, ‘약함’이라는 차원으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4-4>와 같다.

<표 4-4>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현실에 당혹함	정도	큼-작음
갈등을 경험함	정도	큼-작음
부정적 선입견으로 바라봄	정도	큼-작음
현실을 딛고 일어섬	의지	강함-약함

(3) 현상

“참여를 통해 존재감 찾아가기”

참여자들은 같은 출신국 친구를 따라 자활사업단에 놀러 갔다가 그곳의 실장의 제의로 일을 시작한 경우,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한국어 실력이 차츰 늘어나 재가복지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한 경우, 남편이 일을 하다가 다쳐 가게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겨 아이들의 선생님의 권유로 조리사로 활동하는 경우, 결혼하기 전 아동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보육교사 경험과 지역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3개월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원어민 강사로 활동하는 경로를 통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몸은 지치고 힘들지만 마음만은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지역사회활동을 통해 한국문화도 경험할 수 있었다. 많지는 않지만 직접 벌어들인 수입이 생기면서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자존감도 높아졌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여성단체에 가입하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열정을 품게 된 것도 큰 수확이라 여겨진다. 또한 지역축제나 행사 및 학교 운동회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교류하고 정보를 습득하기도 하였으며 마을 행사에 참여하여 마을 주민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가고 지역사회에 한 발 다가서는 기회로 작용한다.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마을 여행 같은 거 있으면은 같이 가고.” (튼튼한 마을사람으로 되어가기, 참여자 2)

“그니까 봉사활동 하고 싶으니까 뭔가 있으면 마을회관에 안마 봉사하고 그런 거 하고 또 동네 분들 모시고 어디 갔다 오고 그래요.” (교류, 참여자 12)

“활동 같은 것. 저기... 뭐냐하면은 여성단체? 거기에 지금 가입하려고요. 한국에 살면은 그 실제 생활에 들어가서 이야기도 듣고 수다도 떨고 하면은 나... 한국생활이 더 빨리 적응하고... 많이 적응했지만은 그래도 이해할 것이다.” (여성단체에 가입, 참여자 7)

“공부했어요. 1년 동안 공부 했어요. 그 왜냐면은 다문화 아이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도와주고 싶어요.”(다문화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 참여자 15)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인 ‘참여를 통해 존재감 찾아가기’의 속성은 생활의 변화 ‘정도’면에서 참여자들이 삶의 활력소의 원천이고 가족으로부터의 인정의 정도가 높은 경우 ‘생활전반적’으로, 현재하고 있는 일이 일시적이고, 경제권 획득의 정도도 낮고, 사회적 인정의 정도가 낮은 경우 ‘생활 부분적’으로 차원이 구분된다. 또한, 참여자가 인식하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함’의 속성은 ‘강도’면에서 여성단체에 가입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의 적극성을 보이는 차원에 따라 ‘큼’ 과 ‘작음’으로 나타났다. 현상의 속성과 차원은 <표 4-5>와 같다.

〈표 4-5〉 현상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참여를 통해 존재감 찾아가기	정도 강도	생활 전반적-생활 부분적 큰-작음

(4) 중재적 조건

① 사회적 지지체계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족체계인 배우자, 시댁, 원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한국생활에 정착해 가고 있었다. 조선족 출신의 이주여성의 경우 남동생이나 아버지가 한국에 들어와 살면서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직장동료와 이웃 그리고 자조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배움을 함께하고 아이들을 통해 이웃간의 정을 쌓아가는 경험을 하였다.

“네, 사랑해요. 남편은 친구들한테 내 아내는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족의 지지, 참여자 15)

“저는 유치원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아요. 저희 신랑보다 더...” (직장동료의 지지, 참여자 10)

② 지역적 한계

참여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은 농촌지역이다. 농촌의 환경은 도시에 비해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교육시설 등 주민들이 누리고 즐길만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교육시설도 지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생활여건상 다양한 생필품을 구하기가 어렵고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는 차를 이용하여 인근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자녀들을 교육시킬 만한 유치원이나 학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이 안 되는 이주여성들로서는 농촌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가 쉽지 않다. 경제력만 있다면 자녀교육을 위해 도시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 지금까지 정착하여 살고 있는 생활터전을 떠나기가 쉽지 않고 생계를 위해 농사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시로 이주한다는 건 생각조차 하기 힘들다. 또한, 농촌지역의 주 소득원인 농업소득이 일기에 따라 차이가 많고 더욱이 머잖아 맞게 될 남편의 노후에 따른 건강문제는 결혼이주여성의 미래의 삶을 불투명하게 전망하게 하고 이러한 예측하기 힘든 생활상의 어려움은 농사일 이외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놀이터 같은 거 또 조금 많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시골이라서 애기들이 적으니까 그런 것들이 마을 마을마다 준비하기는 어렵겠는데...” (문화공간의 부재, 참여자 1)

“불편한 점은 많죠. 우리 애기 5살 될 때까지 유치원 생기지 않았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딱 엄마가 맡아 못 알아 먹어도 유치원에서 많이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는데 그때도 없어요. 우리 아들은 하나도 못 듣고 살았을 거예요. 못 배우고...” (생활여건의 부족, 참여자 11)

“남편들이 지금은 일하고 있지만 나이 차이가 20살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나중에 일을

못하고 농사 한다해도 얼마 안되잖아요. 날씨에 따라서 일을 갔다가 안 갔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제일 걱정이예요.” (이중고에 시달림, 참여자 12))

본 연구에서 중재적 조건은 '사회적 지지체계', '지역적 한계'이다. '사회적 지지체계'의 속성은 내용과 강도의 '정도'면에서 'کم', '작음'의 차원으로 구분된다.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지지체계'의 양적인 '수'면에서 '많음', '적음'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한계'의 속성은 지역사회 차원의 자녀들의 교육적 여건과 생활편의상 접근성이라는 '여건'상의 차원에서 '충분', '부족'으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4-6>과 같다.

<표 4-6>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사회적 지지체계	정도	کم-작음
	수	많음-적음
지역적 한계	여건	충분-부족

(5) 작용/상호작용 전략

① 삶의 돌파구 찾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집안에서만 갇혀 지내던 참여자들은 한국어가 익숙해지고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삶의 돌파구를 찾고자 지역사회활동을 시작하였다. 여러 직업을 경험하며 자신감을 쌓았고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무능하게만 여겨졌던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보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조건부수급자 신분으로 군청에서 소개한 자활사업을 참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난 후 간병인 활동을 하게 되고, 같은 아파트 한국 이웃 언니를 통해 화장품 외판원 경험을 하거나, 남편 누나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주방 일을 경험 하는 등의 기회가 되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열심히 노력했다.

“처음에요? 가사 간병 할머니 집에 가서 청소하는 거 가사 간병. 자활에서 거기를 다녔어요.” (다양한 직업 경험, 참여자 6)

“처음에는 친구도 없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가 소개해 화장품 이런 것 해봤고 또... 병원에서도 해봤고요.” (주변 소개로 일을 나섬, 참여자 9)

“선생님들도 제가 여기 저기 다니면서 음식. 거기 다니면서 선생님들 말이 ‘추석이나 대목 때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판매해라.’ 그러면은 누가 알려주겠지. 최근에는 뭐가 할수 있냐면은 떡같은 것, 베이커리도 고명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꼭 전과과자만 아니더라도 어디 식품에 들어가서 그 사용할 수 있는... 제과점에서 만들어질 수 있구나.” (열정을 쏟음, 참여자 11)

② 수용해 나감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맞닥뜨리게 된 현실의 어려움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것이었다. 의사소통도 되지 않았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으며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인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한국생활에 적응하게 되었다. 모국에서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던 참여자도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함께 농사일을 거들며 사는 농촌생활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공기 좋은 시골이 복잡한 도시보다 낫다고 여겨졌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으며 이제는 한국문화에도 익숙해졌다.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시고 그 농사는 제 생각보다는 농사하고 힘들지 않아요. 요즘 기계들 다 있잖아요. 힘들지 안 하고 뭐 열심히 하면 농사도 논 있으면 만약 논 있으면 먹고 살... 뭐 그런...” (배우고 익힘, 참여자 3)

본 연구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삶의 돌파구 찾기’, ‘적응해 나감’이다. ‘삶의 돌파구 찾기’의 속성은 ‘행위’이다. 강한 생활력을 가지고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마을축제에 참여하는 활동성과, 열정과 비전을 품고 생활하는 ‘삶의 돌파구 찾기’의 대처방식의 차원에 따라 ‘적극적 행위’, ‘소극적 행위’로 나타났다. ‘수용해 나감’의 속성은 ‘정도’면에서 생활의 여유를 가지고 한국문화를 배워가며 한국생활에 만족하는 정도의 ‘높음’, ‘낮음’이라는 차원으로 구분된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은 <표 4-7>과 같다.

<표 4-7>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삶의 돌파구 찾기	행위	적극적-소극적
수용해 나감	정도	높음-낮음

(6) 결과

① 미래를 준비

참여자들은 대부분 미래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나이가 많은 배우자의 건강도 염려되거나와 뚜렷하지 않은 직장과 일정하지 않은 수입 때문에 자녀들의 학비와 노후의 생활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다. 배우자만 의지하며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는 처지라 참여자들은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들의 대학 등록비를 위해 적금을 들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한다. 생활비를 쪼개어 배우자의 건강보험도 가입하였다. 그리고 자아실현을 위해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조리사, 일본어학원 강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금이 마련되면 남동생과 함께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고 싶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불안하기만 한 미래지만 꿈과 희망이 있기에 결혼이주여성들은 결코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근데 애기 아빠가 워낙 나이가 있고 하니까 혹시나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감당을 못하잖아

요. 그거라도 없는 돈 쪼개서... 화재(보험)쪽에... 그래서 넣어놨어요.” (불안한 미래를 대비함, 참여자 6)

“배를 말려요. 설탕에다가 절여가지고 또 염색을 해요. 천연염색. 예를 들어서 선인장, 치자, 무, 비틀 그런 것들을 갈아가지고 즙내서 거기서 담아서 염색해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제 모양을 한국지도로... 9도 있잖아요.” (계속적인 도전, 참여자 11)

② 공적 지원체계에 대한 기대를 가짐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취업을 원하지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필리핀 이주여성 등 몇몇 참여자를 제외하고는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그다지 많지 않다. 참여자들은 생활이 궁핍한 이주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기를 희망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엄마로부터의 사회화가 늦어지면서 학습부진과 친구들의 놀림까지 받게 되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존감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농업에 종사하는 참여자들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농가가 큰 손실을 입었을 때 관계처의 보조비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한국에 정착하여 사회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언어·문화·법률 지식 등 사회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느낀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은 배우기를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비를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기를 희망한다.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면 취직. 취직을 원해요.” (직업알선, 참여자 12)

“뭘 끝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으면 일하게끔 거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왕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이렇게 배워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 자립교육을 필요함, 참여자 13)

“정부에서 이주여성들한테 학교, 솔직히 학교, 아마도 많은 분들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기회 있으면은 이 분들은 학교 보내라. 이것은 필요하고 원해요.” (교육지원을 희망, 참여자 15)

본 연구에서 결과는 ‘미래를 준비함’, ‘소득활동을 희망함’, ‘공적 지원체계에 대한 기대를 가짐’ 등의 3가지 범주이다. ‘미래를 준비함’의 속성은 ‘수준’으로서 가족의 미래 건강에 대비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과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등의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높은 수준의 ‘충분’, 낮은 수준의 ‘부족’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공적 지원체계에 대한 기대를 가짐’의 속성은 생활상의 일자리 제공과 자연재해상의 금전피해 등의 문제해결에 중점을 둔 ‘생계적’ 차원에 대한 기대와 직업교육과 자녀교육비 지원 등의 ‘생활적’ 차원으로 구분되며, ‘기대’의 속성은 ‘높음’, ‘낮음’으로 나타났다. 결과의 속성과 차원은 <표 4-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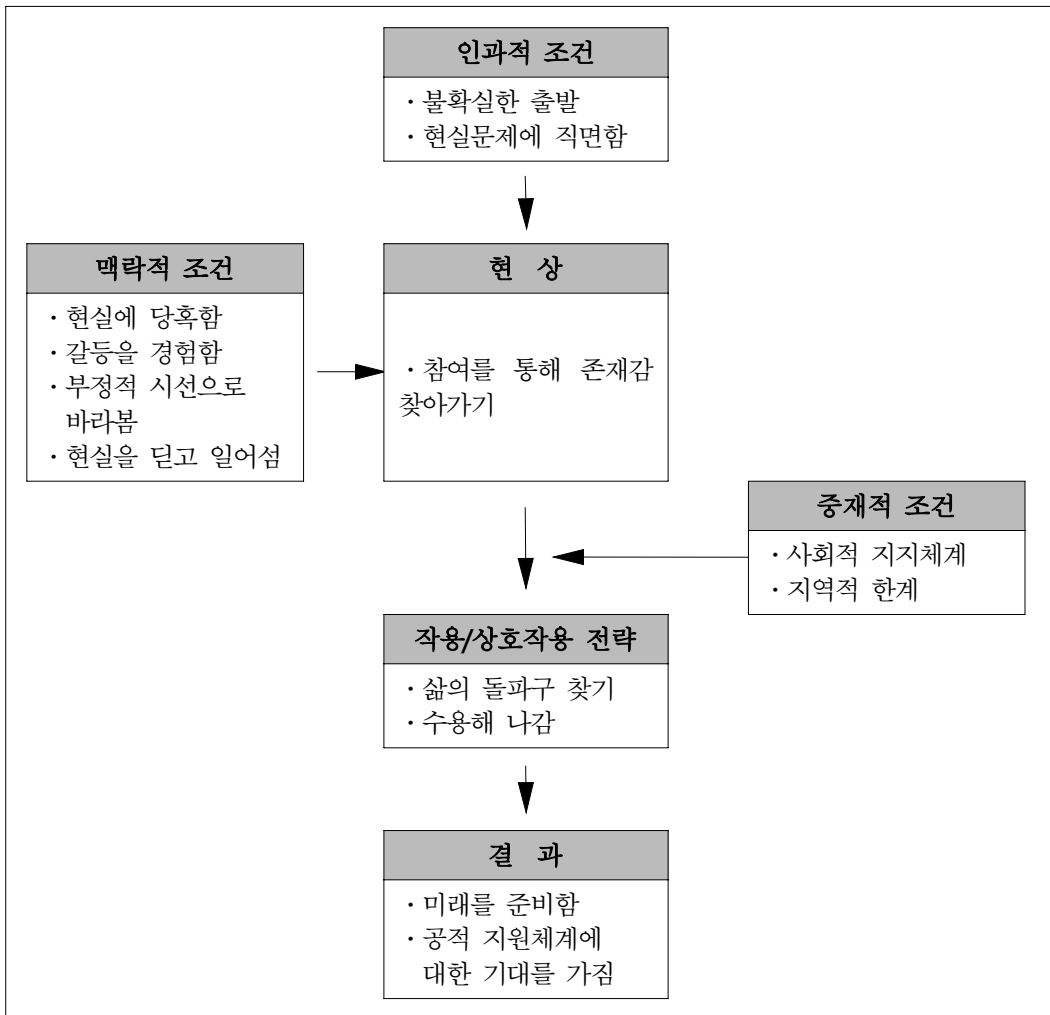
<표 4-8> 결과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미래를 준비함	수준	충분-부족
공적 지원체계에 대한 기대를 가짐	차원 기대	생계적-생활적 높음-낮음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하여 현상을 중심으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를 배치하면 다음의 [그림 4-1]과 같다.

3) 선택코딩

(1) 핵심범주



[그림 4-1]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생활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과정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활동 참여로 나 찾아가기”가 가장 핵심적인 범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생활에 변화가 생겼다. 지

역사회 참여활동을 통해 세상 밖과 소통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일을 함으로써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찾게 되었다. 집에서 혼자 남게 되어 겪었던 외로움과 스트레스, 낮은 자아정체감의 굴레는 점차 줄어들면서 반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인 한국어 실력은 점점 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일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인정을 받고 비전을 갖고 보람을 느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열정을 품게 된 것도 큰 수확이라 여겼다. 그러나 한국 생활상의 과정에는 불안한 요소들도 상존하고 있었다. 즉, 현재의 경제적 불안정과 남편과의 연령차이로 인한 남편의 건강문제와 자신들의 노후 걱정도 미래의 불안 요소였다. 그러나 배우자만 의지하며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는 처지라 참여자들은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역사회 참여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국민을 위한 통역활동을 꾸준히 하겠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한국에 정착하여 사회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언어·문화·법률 지식 등 사회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은 배우기를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비를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기를 희망하였다.

(2) 이야기 윤곽의 전개

연구 참여자들은 막연한 기대감과 희망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였거나 결혼적령기를 넘기게 되자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지 않고 결혼하였다. 생면부지의 남편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도 시집온 후에야 알게 되었다. 처음 한국에 와서 겪게 된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문제였다.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물론 동네 어른들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본인의 생각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답답한 나머지 외출도 거의 하지 않고 지냈다. 참여자들이 거주하는 농촌은 도시에 비해 여러 가지 시설도 부족하고 교통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생필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적 한계로 인해 자녀들을 위해서는 도시로 나가고 싶지만 부모님과 함께 터전을 잡고 생활하는 곳을 떠나기는 쉽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정착 초기에 배우자나 시댁과의 갈등과 부정적 측면을 접했지만 다양한 지지체계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가족체계 내에서는 남편의 언어적 지지를 비롯하여 시부모님과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었다. 이웃들은 먼 타국에 와서 고생하는 참여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따뜻하게 환대해주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조집단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를 나누었다. 또한, 시어머니와 남편을 설득하고 자조집단을 통해 취업정보를 취득하여 지역사회활동에 적극 도전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밖에도 학교 운동회나 학부모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서로 의논하며 해결책을 찾는 등 지역사회 안에서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강한 생활력을 가진 참여자들은 가정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경제활동 이외에도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처지가 어려운 이주여성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사회활동을 지지하고 배려해주는 가족들 덕분에 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이 생겼고 일하는 보람을 느꼈다. 직장에서도 성실함을 인정받게 되면서 자신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스스로 인내하고 희생한 만큼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었고 참여자도 자신을 믿고 인정해주자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가족 간의 결속력과 사랑도 깊어져 갔다. 경제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도 존재감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얽매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과정을 발판삼아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가며 자신이 삶의 개척자임을 인식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상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3) 과정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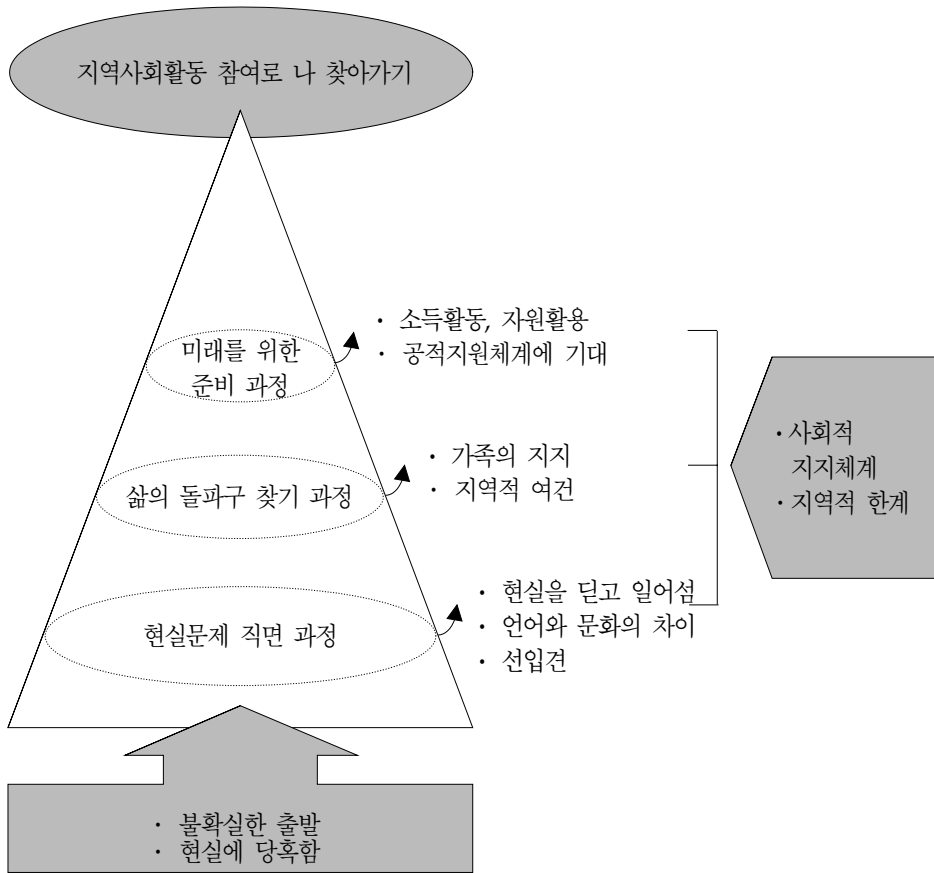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생활 과정상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현실문제 직면과정 단계, 삶의 돌파구 찾기 과정 단계,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 단계 등 세 단계로 나타났다([그림 4-2] 참조).

첫째, 현실문제 직면 과정으로 이 과정은 참여자들이 한국의 농촌사회에 정착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과정이다. 막연한 환상을 품고 한국에 온 참여자들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되고 시댁식구들과 이웃 등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문화의 차이, 부정적인 선입견, 외로움 등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 과정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생각들이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못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 정서적인 외로움과 생활의 궁핍함 등을 비롯하여 새로운 가족 및 이웃 간의 갈등으로 인해 '힘듦'을 경험하게 된다.

둘째, 삶의 돌파구를 찾기 과정으로 이 과정은 참여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면서 직면하게 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다. 참여자들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과 난관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순응하며 받아들인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가족 및 사회의 지지체계, 교류, 자원봉사, 자활 프로그램, 지역사회 참여활동, 해당 기관의 지원요청 등을 활용하였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선택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고 보람, 삶의 활력을 느끼며, 비전과 열정을 품게 되었다.

셋째, 미래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이 과정은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한국 사회에 적응하게 되고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자녀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들고 생활비를 쪼개어 남편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영어강사로 활동 하고 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참여자들과 결혼이주여성들을 돕고자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후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참여자도 있는가 하면 부지런히 돈을 벌어 남동생과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무역업을 하고 싶어 하는 참여자도 있다.

이상의 과정은 참여자마다 조금씩 패턴은 다르지만 참여자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게 되기까지 공통적·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다. 결혼 초기에 겪게 되는 현실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게 되지만 단순히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삶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점차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미래를 위한 준비와 계획까지 세우게 된다.



[그림 4-2]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생활경험 과정

5. 결론 및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경험을 통해 결혼이주 초기 디딤돌 지역사회(steping-stone community) 차원의 접근을 극복하고 조직화 되어있는 지역사회(organized community)에 적응하고 공동체 성원으로로서 활동해 나가는 '생활세계로서의 지역사회 통합과정'을 적용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개방코딩에서는 71개의 개념, 27개의 하위범주, 1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둘째, 축 코딩에서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 결과, 중심현상은 '참여를 통해 존재감 찾아가기'로 나타났다. 셋째, 선택코딩에서 핵심범주는 "지역사회활동 참여로 나 찾아가기"의 과정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농촌 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활동 참여경험과정에 대한 분석결과 '현실문제 직면 과정', '삶의 돌파

구를 찾기 과정, '미래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파악되었다.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경험에 대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 차원의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활동 참여로 나 찾아가기"이라는 중심현상은 Oberg(1960)의 이주자의 적응 4단계 중 3단계인 회복단계의 양상을 나타낸다. 또한 구차순(2007)의 결혼이주가정의 적응과정 4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는 마지막 단계인 '공동체 구성원으로 뿌리내림의 단계'의 특성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이 가정 내 안정적 자리매김과 지역사회에 뿌리내림을 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즉, 일차적 생활세계로서 가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과 소통의 어려움이 여전히 상존하고,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서 지속적인 지역사회 주민과의 상호관계성을 증진할 수 있는 학습 기회가 부재하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초기 적응의 입문과정을 거친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로 생활영역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주민과의 통합을 진전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자체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우선 결혼이주여성 개인 차원에서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재해석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과 자녀와 함께 가족단위 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국가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등을 담은 배우자 국가의 문화 이해와 수용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최혜지, 2009).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거주지역의 공통 관심사와 농촌지역의 마을단위의 오랜 관행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교육활동이 곧 실제 생활 속 언어 소통의 경험으로 체화될 수 있게 하고, 지역주민도 교육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결혼이주여성과의 보다 밀착적인 관계형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결혼이주여성 스스로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느끼고 자존감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가짐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이 가능하도록 조직화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유기적인 협조와 노력을 지원하는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역 차원의 복지계획 수립과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정 지원조례에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 공급 주체들이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에게 지역사회 참여의 촉진자 및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지역행사와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도 이러한 지역행사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쌍방향적 수용태도가 필요하다. 군 단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수평적 입장에서 상호 소통하고 지역민과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출신국 여성들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지역의 한국이웃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초기 적응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주여성들만의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심리적 안정의 닻(anchor)에 정착하여 '초국적 순회'(transnational circuit)를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이근무·김진숙, 2009; Faist, 2000). 특히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보육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민단체 등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면, 농촌지역의 특성상 넓은 지역에 여성들이 흩어져 살고 있으므로 지역의 읍, 면 단위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사, 마을

이장, 마을 부녀회, 여성 농민회 등 마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공식적·비공식적 사회관계망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이주자의 정착을 위한 중도적 수준의 임파워먼트 접근으로 지역사회개발과 네트워킹의 통한 옹호활동의 일환이다(Nash, Wong, and Trilin, 2006).

셋째, 결과에 나타난 현상으로 참여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의 자립을 위해 공적 지원체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생활이 궁핍한 이주여성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받기를 희망한다. 공공과 민간차원에서의 지원은 다문화가정지원을 위한 공공캠페인이나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자매결혼, 지역사회 내 이들의 정착과정을 돕는 다양한 프로젝트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윤혜미, 2009).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고, 농촌지역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취업기술 교육과 일자리 알선을 위한 특화된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결혼이주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언어, 문화적 배경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분야·통·번역, 관광, 문화 분야 등 -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신국에서 특정한 자격을 갖추거나 교육과정을 거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자격증제도-요양보호사, 아시아문화교사, 아시아 언어 통역사 등-를 도입하여 스스로의 역량강화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기술교육과 사회적 기업 운영을 연계하여 교육을 이수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적 기업에 취업될 수 있도록 하는 모델 사업을 집중 개발함으로써 취업기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Job coaching 프로그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김이선 외, 2008). 이와 함께 결혼이주성과 남편, 자녀들의 가족주기를 반영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례관리와 건강과 보건, 노후준비에 대한 금융지식 등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민, 관, 전문가 등의 다양한 기관간의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여성복지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여러 사회복지실천은 성찰적인 분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을 한국인 남성의 배우자가 아닌 국민의 배우자라는 다시 이름 짓기(renaming)가 오히려 편향된 보호대상으로 집단낙인화하거나, 이미 세계화된 이주여성들에게 지역사회 도착문화만을 강요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인정하는 실천기법들이 요구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정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여전히 상당수는 공적지원체계에 의한 지원대상이므로, 임파워먼트와 강점관점 뿐만 아니라 개별화(individualization)된 서비스 개입이 필요함을 고려하여야 한다(Forcey, and Nash, 1998; 장수정, 2010).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제시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별, 생애주기별,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지역사회활동 참여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인 근거이론을 활용해서 결혼이주여성이 생활세계로서의 지역사회에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면적인 이해를 위해 그들의 생각의 창을 통해 조망하고 재해석하여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장에서 활용 가능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란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 강대선·류기형. 2007.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응집력과 지역사회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1): 33-34.
- 강유진. 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구차순. 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복순. 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베트남, 필리핀, 중국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2): 5-32.
- 권복순·차보현. 2006. “농촌지역 코시안가정주부의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8(3): 109-134.
- 김오남. 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체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이선·양인숙·황정임·고혜원. 2008.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통합 진전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 (Bridge Program) 추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재규.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 관련 요인 분석”. 『농촌경제』 29(3): 38-53
- 사토 아키히토. 2008. “도쿄 오쿠보(大久保) 외국인 집단거주 형성과 ‘다문화 병생(併生)’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동훈.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신경립 역. 2001. 『질적연구 근거이론의 단계』. Anselm Strauss & Juliet Corbin 저. 서울: 현문사.
- 신경립·김미영 역. 2003. 『근거이론 연구방법론』. Scheriber, Rita Sara and Phyllis Noerager Stern. *Using Grounded Theory in Nursin*. 서울: 현문사.
- 신란희. 2005. “국제결혼 여성의 가족, 일 그리고 정체성: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 여성의 생애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농촌사회』 16(2): 5-39.
- 양애경·이선주·최훈석·김선화. 2007.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 연구”. 『다민족·다문화사회를 향한 한국사회의 도전과 전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철호·김영자·손순용·양선화·신봉관·조지현. 2003.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6: 127-149.
- 염미경·김규리. 2008. 『제주사회의 여성결혼이민자들 -선택과 딜레마, 그리고 적응-』. 서울: 선인.
- 윤혜미. 2009.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임파워먼트 기반의 사회복지실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4): 94-95.
- 윤형숙.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사회학회·한국문화인류학회 공동연구,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경기도: 한울 아카데미.
- 이근무·김진숙. 2009. “국제 결혼한 남성들의 생애사 연구: 7인의 새로운 디아스포라 이야기”. 『한국사회복지학』 61(1): 135-162.
- 이용균. 2007.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보은과 양평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35-51.

- 이태주·권숙인·Julia Martinez·Yamamoto Karoi.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 갈등 양상과 극복과정: 호주와 일본의 사례』.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0-180.
- 장수정. 2010. “여성주의 여성복지: 현 쟁점에 대한 성찰과 과제를 중심으로”. 『2010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73-86.
- 최금혜. 2005.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기 생활체험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 219-244.
- _____. 2006.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혜지. 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163-194.
- 황정미·문경희·양혜우·정승희. 2009.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현황과 증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Berry, J. W., and T. Blodel. 1982. “Psychological adaptation of Vietnamese refugees in Canada”. *Canadian Journal of Community Mental Health* 1: 81-88.
- Castles, Stephen. 2002. “Migration and Community Formation under Conditions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6(4): 1143-1168.
-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 2003. *The Age of Migration*.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Chrysochoou, Xenia. 2004. *Cultural Diversity: Its Social Psychology*. Oxford: Blackwell.
-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De Jong, Fi Gordom, Kerry Richer, and Pimonpan Isarabhakdi. 1996. “Gender, Values, and Intentions to Move in Rural Thailand”.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0(3) (Autumn): 748-770.
- Dochery, I., and R. Goodlad. 2000. Civic culture, community and citizen participation contrasting neighbourhoods. *Urban studies* 38(12): 2225-2250.
- Fasit, T. 2002. “Transnationalization in international migration: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citizenship and culture”. *Ethnic and Racial Studies* 23(2): 189-222.
- Forcey, L. R., and M. Nash. 1998. “Rethinking Feminist Theory and Social Work Therapy”. *Women and Therapy* 21(4): 85-99.
- Goetz, J., and M. LeCompte. 1984. *Ethnography and qualitative research design in educational research*. New York: Academy Press. 재인용: 조용환. 2002. 질적연구. 교육과학사.
- Hofstede, G. 1996. “Gender stereotypes and partner preferences of Asia women in masculine and feminine cultur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7(5): 533-536.
- Hugo, G. 2000. “Migration and women’s empowerment”. in H. B. Presser & G. Sen(eds.), *Women’s Empowerment and Demographic Processes*. Oxford University Press.
- Imamura, E. A. 1998. “The loss that has no name: Social womanhood of foreign wives”. *Gender & Society* 12(2): 291-307.
- Itzhaky, Haya. 2003. “Developing Empowerment and Leadership: The Case of Immigrant Women in Israel”. *Affilia*, 18: 289-301.
- Jayati, Ghosh. 2009. “Migration and Gender Empowerment: Recent Trends and Emerging Issues”. *Human Development Research Paper*. UNDP.
- Lauby, Jennifer, and Oded Stark. 1988. “Individual Migration as a Family Strategy: Young Women in

- the Philippines". *Population Studies*. 42(3): 473-486.
- Nash, M., J. Wong, and A. Trilin. 2006. "Civic and social integration: A new field of social work practice with immigrants, refugees and asylum seekers". *International Social Work* 49(3): 354-363.
- Oberg, K. 1960. "Cultural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s". *Practical Anthropology* 7: 177-182.
- Piper, Nicola. 2008.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of Foreign Workers: Gendered Advocacy and Migrant Labor Organizing in Southeast and East Asia". in *New Perspective on Gender and Migration: Livelihood, Right and Entitlement*.
- Ramirez, Carlota, Mar Garcia Dominguez, and Julia Miguez Morais. 2005. *Crossing Borders: Remittance, Gender and Development*. Working Paper, INSTRAW.
- Roberts, Lance W., and A. Clifton, Rodney. 1982. *Exploring the Ideology of Canadian Public Policy*. 81(1): 88-94.
- Smith, A., and G. Kaminskas. "Female Filipino migration to Australia: An overview". *Asian Migrant* 5(3): 72-81.
- Strauss, A. and J. Corbin.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London: Sage Publications.
- Yamanaka, Keiko, and Nicola Piper. 2005. "Feminized migration in East and Southeast Asia: Policies, actions and empowerment". UNRISD Occasional Paper 11, Geneva.
- Zentgraf, Kristine. M. 2002. "Immigration and Women's Empowerment: Salvadorans in Los Angeles". *Gender and Society* 1: 625-646.

A Qualitative Study on the Community Participation Experienc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Rural Areas

Lee, Hyoung-Ha
(Kwangju Women's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mmunity living experienc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rural areas.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qualitative research by sampling 14 married immigrant women who had lived in Korea for over three years by having in depth interviews with them. This study employed the grounded theory method suggested by Strauss and Corbin(1998).

When raw data from in depth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were processed by open coding through the continuous comparison method with theoretical sensitivity, a total of 13 categories, 27 sub categories, and 71 concepts were extracted. In case of axial coding,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through the paradigm procedure, the causal conditions for the community living experienc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rural areas were 'Uncertain start' and 'Confront practical problems,' and the central phenomenon was 'Search for existence to participate in community activities.' Contextual conditions affecting the phenomenon was 'Regret international marriage,' 'Experience conflicts,' and 'Look with negative prejudices,' 'Overcome the actual' and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were 'Look for a breakthrough of life' and 'Manage to acceptance.' Intervening conditions for promoting or suppressing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for the central phenomenon were 'Social support system' and 'local limitations,' and as a result, the community living experienc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rural areas appeared to 'Prepare the future,' 'Hope continuous social activities,' and 'Expect public support systems.'

Key words: married immigrant women, community activities, experiences of community participation , grounded theory

[논문 접수일 : 10. 04. 07, 심사일 : 10. 04. 08, 게재 확정일 : 10. 04. 27]